



[경제종합]
잡코인 많으면 불리
거래소, 특금법 앞두고
무더기 정리
03



Life

[라이프]
맛집탐방 특색있게
식음료 힘 주는
유통가
니



“특이한 사람 아니에요”... 그루밍족 트렌드 선도 ‘뷰티 유튜버’



새벽을 여는 사람들

뷰티크리에이터·유튜버
스완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 유튜버 활동
국내 최초 남성 뷰티 커뮤니티 운영

화장품 브랜드 ‘비레디’와 제품 개발
맨즈뷰티 유튜버와 콘텐츠 만들기도

궁극적 목표 위해 화장품 대기업 퇴사
남자 뷰티시장 발전 위해 노력하고파

3년 차 남성 뷰티 크리에이터 겸 유튜버 스완(SWAN·28·본명 김수완)이 남성 뷰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최초·최대 남성 뷰티 커뮤니티 ‘비온드 그루밍’을 운영하고 있으며, 뷰티 유튜버 중 최초로 구독자 남성 비율 95%(댓글 기준)를 달성했다.

스완은 뷰티크리에이터 2년 차이던 지난해 4월에는 아모레퍼시픽 남성 메이크업 전문 브랜드 ‘비레디’가 선보인 뷰티업계 최초 남성을 위한 아이 팔레트 제품 색상 개발에 참여했다. 이어 작년 9월에도 비레디의 ‘마그네틱 피팅 쿠션’ 제품 기획부터 개발까지 직접 참여했다.

“정말 감사한 프로젝트였고, 결과도 정말 좋았습니다. 당연히 인지도나 협찬 빈도가 많이 늘어났고, 공동구매나 같이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느꼈던 건 저와 구독자분들 사이에 신뢰감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스완의 인지도가 올라가면서 1년 새 구독자수는 두 배로 늘어났다. ‘비온드 그루밍’의 회원 수는 3배 증가했다. 덩달아 스완의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일단 영상을 만들 때 느끼는 책임감의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정말 열심히 고민해서 영상을 만들었지만, 더 많은 분이 영상을 봐주실수록 제 영상의 퀄리티가 더 좋아져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만큼 제품도 더 많이 사서 써보고, 장비에도 투자하고, 편집자분도 모셔서 일하고 있어요.”

구독자가 많아졌음에도 스완은 유튜브와 비온드 그루밍에 댓글·대댓글도 하나 하나 달아주며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온드 그루밍의 경우 뷰티 분야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제품 리뷰나 신상 정보 등 뷰티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오고 가고 있다.

“말씀해주신 작업이 사실 시간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입문자이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알려드려야 할지 막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마냥 모른 척할 수는 없기도 하고, 수많은 질문에 대해 하나하나 영상을 다 만들 수는 없다 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구독자가 많아지다 보니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최대한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볼 생각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스완은 자신의 성장과 구독자수·가입자수 증가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APMALL(아모레퍼시픽 공식온라인몰)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한 스완.



스완은 지난 4월 비레디가 선보인 업계 최초 남성 아이팔레트 제품 색상 개발에 참여했다.



맨즈뷰티 유튜버 아우라M님과 콜라보 콘텐츠를 진행한 스완.

“채널은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유튜브 구독자 수’의 성장이 저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됐어요.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비레디 같은 좋은 브랜드와의 콜라보 경험도 너무 의미 있는 성장이었어요. 최근에는 유명 맨즈뷰티 유튜버 아우라M님과 콜라보 콘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틱톡’ 플랫폼에 새롭게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성장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스완의 인기비결은 ‘꾸안꾸(꾸민 듯 안 꾸민 듯 자연스럽게 꾸미다의 줄임말)’, 화려한 색조 화장 대신, 한국 남성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제품, 그루밍 방법, 시술 정보 등을 제공한다. 과하게 꾸미는 데 부담이 있는 남성, 이제 막 그루밍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뷰티 입문자들 사이에서 스완의 영상은 교과서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채널을 처음 개설했을 때는 적은 수지만 스완을 ‘다르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그루밍족이 증가하면서 그러한 인식도 줄어들었다.

“확실히 요즘은 ‘특이한 사람’으로 봐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2년 전만 하더라도 ‘남자 뷰티 유튜버’에 대해 뉴스 등의 매체에서 ‘특이한 이슈’로 다루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거든요. 요즘은 그런 관점보다는 그냥 새로운 하나의 트렌드로서 많이 다뤄주십니다.”

명문 외국어 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스완은 최근 국내 화장품 분야 1위 대기업을 퇴사했다. 스완의 궁극적인 목

표는 뷰티 유튜버의 성공을 넘어 남성 뷰티시장을 선도하는 것이다. 유튜브는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채널 중 하나지만 스완은 유튜브 채널 규모와 상관없이, 뷰티 기업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관계자들을 알아가기를 원했다.

“열지생활건강이라는 좋은 기업을 잠시나마 경험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는 않았고,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것도 만족스러웠습니다. 뷰티와 소비재 시장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졌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도 어느 정도 받은 것 같아 감사한 마음입니다.”

겸업금지 조항으로 입사와 함께 유튜브를 떠났던 스완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유튜버로 복귀했다.

“막상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 1인 기업으로 살던 제 모습이 많이 그리워졌습니다. 회사 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유였다기보다는, 그냥 저라는 사람의 성향의 문제였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말하자면 정말 다양하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대기업에 속해 있으면 그런 자유는 많이 없으니까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당분간 다시 큰 회사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소 불안하고 불안정하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지금 생활에 매우 만족합니다. 남자 뷰티 시장의 발전을 위해 제가 하고 싶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남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흥집을 데 없는 손흥민 활약, FIFA도 토트넘도 주목 /사진 뉴시스
▲ 김하성이 떠올린 총들의 순간... ‘골 플레이가 잘 안 됐어’

▲ ‘허리 통증’ 김광현, 결국 열흘짜리 부상자 명단
▲ 맨시티 디아스, EPL 데뷔 시즌에 ‘올해의 선수’



▲ 김준태 시인 5·18 시 ‘5월 광주는...’ 일본신문 게재
▲ ‘암환자 백신 접종, 치유 여부 상관 없이 우선해야’ /사진 뉴시스